

		<b>보도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11. 13.(화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KIND 전략기획본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장 고준석</li> <li>• ☎ (02) 6746-7352</li> </ul>
보도일시		2018년 11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한국전력-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<sup>1)</sup>) 해외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한국전력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전력사업 진출 기회 확대
- 국내 건설 회사들의 해외 전력사업 EPC<sup>2)</sup> 참여 기회 확대
- 해외사업 정보교환 및 유망 해외사업 공동발굴로 개발채널 다변화

- 한국전력(대표이사 사장 김종갑)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11월 13일(화)『해외사업 확대 및 한국 건설회사 해외 EPC 동반 진출』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.
- 이 날 행사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(나주시 소재)에서 열렸으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허경구 KIND 사장의 서명으로 체결됨.
- 본 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과 KIND는 해외사업 관련 정보교환, 사업 공동 발굴과 KIND의 한전 진출 해외사업에 대한 출자 및 투자에 합의함.
-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6월 국내기업의 해외 민관협력 사업(PPP, Public-Private-Partnership)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범하였음
- 인프라 분야(교통, 도시개발, 전력, 산업플랜트, 수자원 및 환경 등)전 방위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해외 전력분야 투자 역시 KIND의 주요 사업 영역임.

1)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&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
2) 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

- 한전은 97년 필리핀 복합화력 진출을 필두로 전 세계 26개국 화력·원자력·송배전·신재생 등 다양한 전력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 중임
- 글로벌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·신에너지 중심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시장 성장한계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.
- 허경구 KIND 사장은 전력분야 세계적 Developer인 한전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KIND의 해외 전력사업 투자기회를 확대하고,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전력사업 EPC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밝힘.

첨 부 : 관련 사진



왼쪽 KIND 허경구사장, 오른쪽 한국전력 김종갑사장